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3. 11. 1.(수) 11:00 < 11.2.(목) 조간 > 배포 2023. 11. 1.(수)

산업부 전 직원이 산업 현장 애로 해소 지원 나서

- 산업부 기동대를 운영하여 산업 현장 애로 발굴·해소 및 정책 의견수렴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 이하 산업부)는 11월부터 산업부 전(全) 직원이 산업 현장을 직접 찾아가 현장 애로 해소를 밀착 지원·관리하고 새로운 정책 과제를 발굴·추진하기 위해 "산업부 기동대(기업 동향 대응반)"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간 대통령이 수 차례 '현장 중심 행정'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으며, 산업부는 산업·통상·에너지 등 실물경제 책임부처로서 장관부터 실무자까지 전 직원이 산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매주 현장 방문, 기업 미팅, 간담회 등을 개최하는 등 산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우선 장·차관은 "불금 간담회(업종별 릴레이식 간담회)"와 "일요 기업탐방" 등을 통해 최고 경영자급을 대상으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산업 정책 및 규제 혁신을 추진하고, 실·국장은 주요 쟁점(이슈)을 중심으로 업종별 기업·전문가 간담회, 현장 방문 등을 통해 현장 애로를 청취하고 신규 정책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과장·실무자는 격주 수요일을 '현장 방문의 날'로 지정하여 현장 방문·부처협의 등을 통해 기업 애로 발굴·해소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업 현장 애로 발굴·해소 체계도 강화한다. 전국 7개 규제·투자 애로접수센터(대한상의 :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와 업종별 협·단체(30여개) 연결망(네트워크), 현장 방문·간담회 등을 통해 수시·정기(분기 1회)로 현장 애로를 발굴하여 소관부서·담당자 지정 및 산업부 1차관 중심의 '현장 애로 점검 회의' 등을 통해 애로 해소를 밀착 지원·관리하고, 필요할 때 관계부처 협의(경제규제혁신전담반(TF), 국정현안점검회의(총리)) 등을 통해 신속히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방문규 장관은 "산업부 전 직원이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현장 애로 해소를 지원하는 '산업부 기동대'를 통해,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산업 정책, 규제 혁신을 추진하여 우리 경제의 활력을 향상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담당 부서	산업정책관 산업정책과 실물경제지원팀	책임자	팀 장	윤용석 (044-203-4235)
		담당자	사무관	지 영 (044-203-4237)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